

e-KIET 산업경제정보

제 602 호

[2014-27]

2014.11.27

2015년 거시경제 전망

요약

2015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경기부양 등에 힘입은 내수 회복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은 연간 3.7%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출과 내수 모두 비교적 고른 증가가 예상되며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흐름을 예상
-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머물 전망
- 미국 출구전략 여파, 중국 성장둔화, 유로권 부진,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주된 변수로,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우세할 전망

민간소비는 대외적으로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세 확대 예상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자동차, 반도체 등의 주도로 5.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2.8%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로 인한 일본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금년보다 소폭 상승한 4.5%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

- 수입은 국내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보다 다소 높은 6% 내외 증가가 전망되며,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74억 달러 내외로 예상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완만한 회복세 지속 중이나 회복 강도는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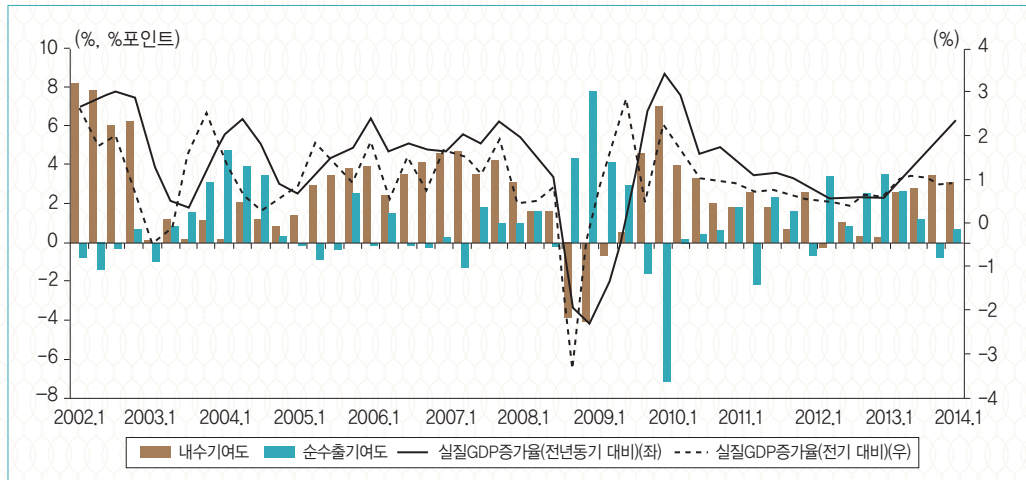
국내 실물경기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중이나 세월호 여파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 저조

- * GDP(전기비, %) : (2013.4Q) 0.9 → (2014.1Q) 0.9 → (2Q) 0.5 → (3Q) 0.9
- * GDP(전년동기비, %) : (2013.4Q) 3.7 → (2014.1Q) 3.9 → (2Q) 3.5 → (3Q) 3.2
- * GNI(전년동기비, %) : (2013.3Q) 4.2 → (4Q) 4.7 → (2014.1Q) 4.5 → (2Q) 3.7

산업생산은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부진한 편이나 세월호 여파, 자동차 파업 영향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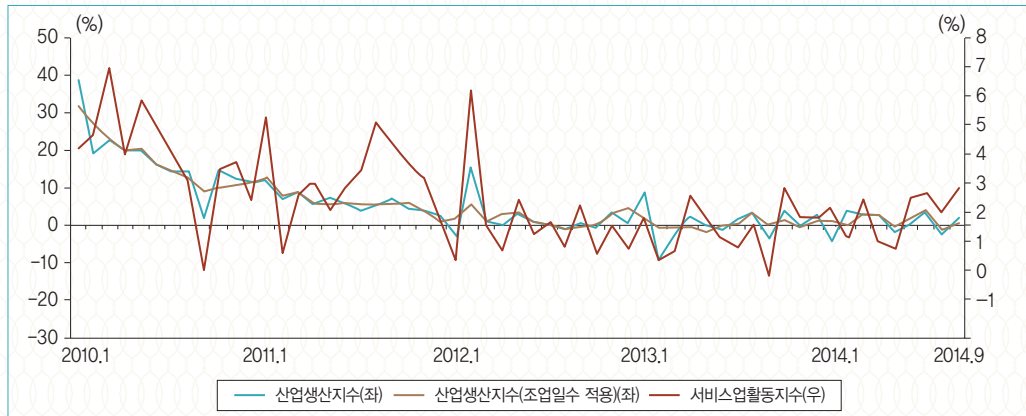
- * 전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 (2013.4Q) 2.6 → (2014.1Q) 1.7 → (2Q) 0.8 → (3Q) 1.7
- * 광공업 생산(전년동기비, %) : (2013.4Q) 1.7 → (2014.1Q) 0.7 → (2Q) 0.3 → (3Q) 1.1
- * 서비스 생산(전년동기비, %) : (2013.4Q) 2.1 → (2014.1Q) 1.9 → (2Q) 1.4 → (3Q) 2.5

그림 1 |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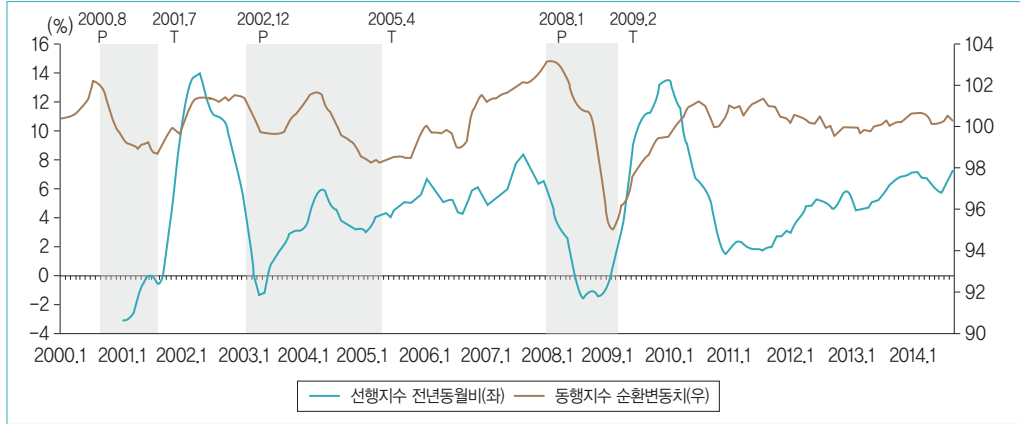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그림 2 |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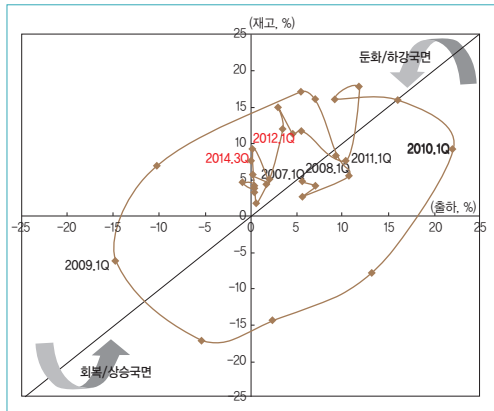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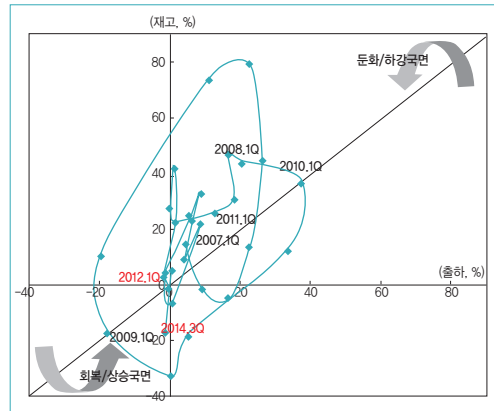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4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07.1Q~2014.3Q)



자료 : 통계청.

그림 5 |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08.1Q~2014.3Q)



자료 : 통계청.

경기선행지수는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2014.4월) 100.5 → (5월) 100.1 → (6월) 100.1 → (7월) 100.2 → (8월) 100.5 → (9월) 100.3
-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2014.4월) 101.4 → (5월) 101.3 → (6월) 101.6 → (7월) 101.6 → (8월) 102.4 → (9월) 103.0

2. 대외여건 전망

세계경제 : 미국경제 주도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세계 실물경기는 연초 낙관적 기대와 달리 선진권 경기의 급등락 및 개도권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둔화세가 완연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연초 한파와 일본이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등락을 보이고, 유로권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의 정정 불안 우려가 지속되면서 역내 경기가 점차 약화

표 1 |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13			2014				2015	2014.7월 전망치와의 격차	
	상반기	하반기	연간	1Q	2Q	3Q	연간(f)	연간(f)	2014	2015
세계			3.2				3.3	3.8	▲0.1	▲0.2
선진권	1.0	1.9	1.4	2.0	1.9	-	1.8	2.3	0.0	▲0.1
미국	1.8	2.7	2.2	1.9 (-2.1)	2.6 (4.6)	2.3 (3.5)	2.2	3.1	0.5	0.0
일본	0.7	2.4	1.5	3.0	-0.1	-	0.9	0.8	▲0.7	▲0.2
유로	-0.9	0.1	-0.4	1.0	0.7	-	0.8	1.3	▲0.3	▲0.2
개도권			4.7				4.4	5.0	▲0.1	▲0.2
중국	7.6	7.8	7.7	7.4	7.5	7.3	7.4	7.1	0.0	0.0
세계교역			3.0				3.8	5.0	▲0.1	▲0.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10월) 등.

주 :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는 하향조정을 의미.

- 개도권에서도 중국이 대내 구조개혁 추진과 인위적인 경기 부양 자제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7.7%)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정책 변수와 정정 불안 우려로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 예상

- 선진권의 경우 미국 경기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금리인상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로권과 일본은 통화당국의 확장적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
- 중국은 중장기 관점에서 개혁 중심의 경제정책과 내수 기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당분간 현 수준의 성장률(7%대) 지속 예상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권 중심의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

* IMF와 OECD는 세계경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최근 수정전망에서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하향 조정

국제유가 : 하락세 지속 예상

국제유가는 이라크 내전 확대 등으로 단기 고점을 기록한 6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Dubai유 기준으로 2010년 말 이후 최저로 하락하면서 2013년보다 하락 추세가 확대된 변동 범위를 형성

- 국제유가 약세는 수요 측면에서 경기회복 기대감 하락으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공급 측면에서 국제 원유 초과공급 상황 지속, 지정학적 불안요인 완화, 금융요인으로 달러화 강세 등이 원인
- 하지만 최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와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가격원리에 따른 수급 조정,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는 2014년 말까지 하향 안정

표 2 |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3					2014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WTI	94.4	94.1	105.8	97.4	98.0	98.7	103.1	97.5	84.8
Brent	112.5	102.9	110.0	109.4	105.3	108.1	109.7	102.7	88.0
Dubai	108.2	100.7	106.0	106.3	108.7	104.4	106.0	101.6	86.9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14년 4분기는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

표 3 | 2015년 국제원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Dubai	105.3 (0.8)	98.1 (-7.6)	101.7 (-3.4)	97.9 (-7.0)	98.4 (0.3)	98.2 (-3.5)

주 1) 2014년 하반기와 연간은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

2) () 안은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단위 : %.

2015년 유가는 유럽, 중국 등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석유수요 부진, 북미 셰일 붐에 힘입은 비OPEC 원유공급 증대, 달러화 강세 등이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유가의 지나친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전 세계 원유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OPEC의 감산 등 유가 방어를 위한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

환율 : 하향 안정세 전망

금년 2분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미국의 경기 회복세 및 조기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횡보 내지 소폭 반등하는 추이

- 올해 1,050.3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3월 말까지 평균 1,069.1원을 기록하였으나, 4월 9일 1,050원선 붕괴 후 7월 3일 연 최저점인 1,008원대까지 하락
-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펀더멘털 호조 및 금리인상 변수의 영향으로 반등하면서 11월 들어 1,100원 수준까지 상승

2015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출구전략과 달러 강세에 따른 상승요인과 국내 대규모 경상흑자 지속에 따른 하락 요인이 균형을 보이면서 횡보에 가까운 하향 안정 예상

- 연평균 환율 기준으로는 현 수준의 횡보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출구전략 추진과 그 여파 등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그림 6 |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표 4 | 원/달러 환율 전망치

단위 : %

원/달러 환율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104 (-3.3)	1,086 (-2.3)	1,095 (-2.8)	1,049 (-5.0)	1,041 (-4.1)	1,045 (-4.6)	1,035 (-1.0)

주 1) 2014년 하반기와 연간은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
2) () 안은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원/엔 환율은 일본의 경기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일본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으로 엔화의 약세가 전망되면서 하락 기조가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

3. 2015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 : 2015년 GDP 성장률 3.7% 내외 예상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경기부양 등에 힘입은 내수 회복세 지속으로 2015년 국내경제는 금년보다 다소 높은 연간 3.7% 내외의 성장을 예상

- 수출과 내수 모두 비교적 고른 증가가 예상되며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 확대 추이가 이어지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속도와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2015년 수출은 약 4.5%, 수입은 약 6%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37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내수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나 소득 증가세 확대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로 견실한 증가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과 정부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SOC 예산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미국 출구전략 여파, 중국 성장둔화, 유로권 부진,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주된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민간소비 : 연간 3% 내외 증가 전망

민간소비는 1분기에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5%를 기록하였으나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부터 1.5%대에 머물며 다소 부진한 증가세

- 재화별로는 상반기 내구재 소비의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확대된 반면 준내구재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비내구재는 낮은 증가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물가 안정 등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하면서 연중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의 증가세가 부진하고 여전히 낮은 가계 소득의 증가세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

- 여전히 낮은 명목임금 증가세와 실질소득의 불안정은 민간소비의 증가폭을 제약

2015년 민간소비는 전년도의 개선 요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에 힘입은 교역조건 개선 추이 지속, 대외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정부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소득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

표 5 |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3					2014		
	1Q	2Q	3Q	4Q	연간	1Q	2Q	3Q
민간소비	1.7 (-0.1)	2.2 (0.7)	2.0 (1.0)	2.2 (0.6)	2.0	2.5 (0.2)	1.5 (-0.3)	1.6 (1.1)
소매판매액지수	0.3 (-0.1)	1.2 (0.7)	0.7 (1.0)	1.2 (0.6)	0.8	2.5 (0.2)	0.7 (-0.3)	1.4 (0.2)
실질GNI	3.2 (0.5)	4.1 (1.9)	4.2 (1.0)	4.6 (1.0)	4.0	4.6 (0.5)	3.7 (1.1)	-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

그림 7 | 재화별 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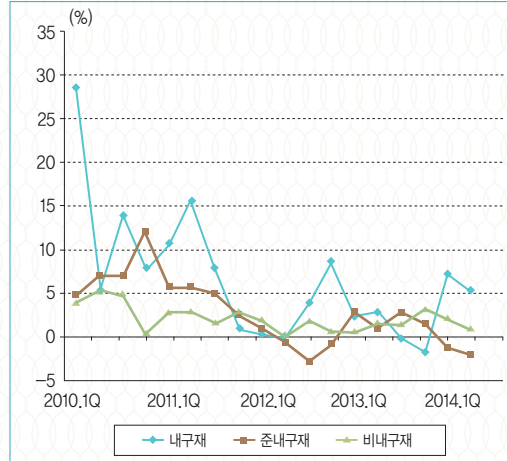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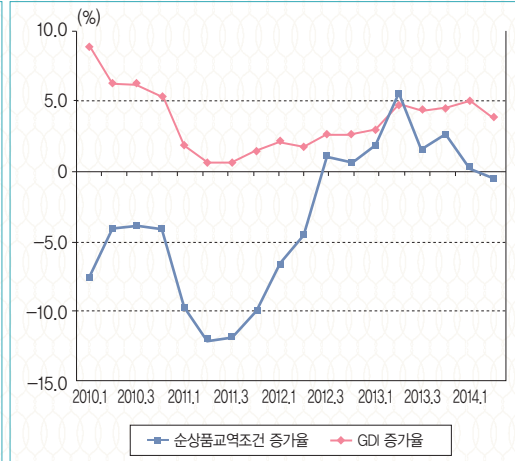


그림 8 | 교역조건과 GDI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대내적으로는 고용의 양호한 증가 추이와 안정된 물가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과 기초 연금 및 생계 급여에 대한 예산의 증액 편성은 민간소비를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2015년 민간소비는 전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3% 내외의 증가를 전망

설비투자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도로 연간 5%대 증가

국민계정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

- 기계류 설비투자지수는 일반기계류,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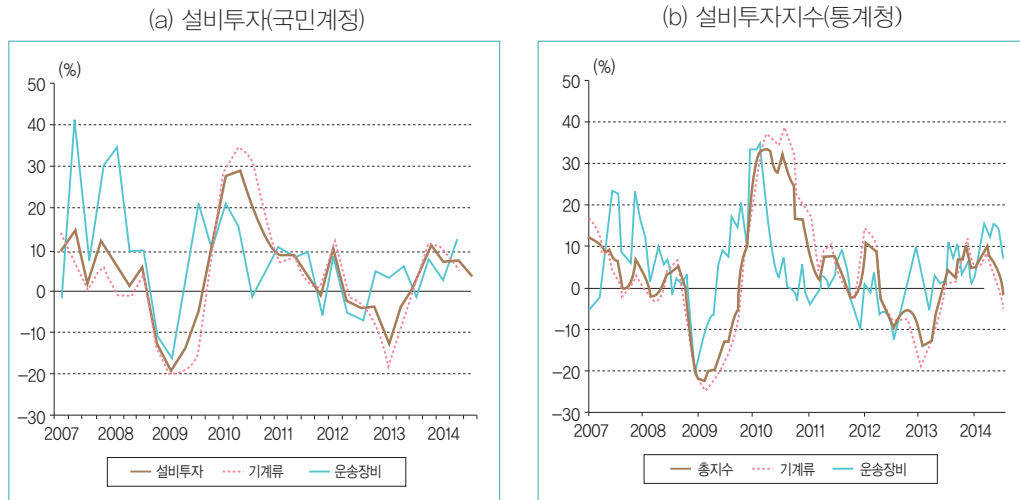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은 엇갈린 전망을 시사

- 기계수주는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설비투자 회복을 시사
- 반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 둔화로 인해 올해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값을 기록
- 설비투자 기업심리지수(BSI)도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는 모습

2015년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확대와 소비 회복,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5%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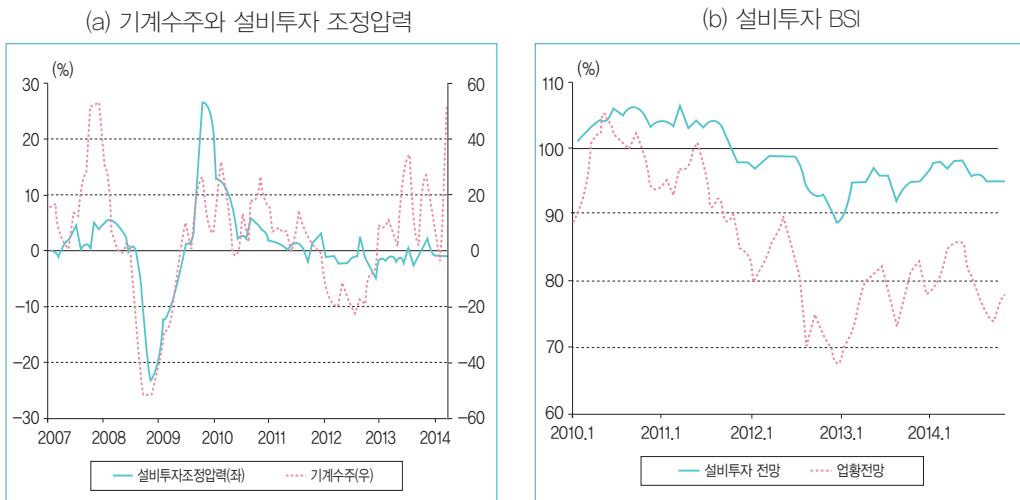
-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종이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

그림 9 | 설비투자 추이(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설비투자지수는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을 이용.

그림 10 |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기계수주(선박제외 불변금액 국내수요)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향 이동 평균.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건설투자 : SOC 예산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 소폭 상승

국민계정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주거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3분기에 회복세로 전환

- 다만, 민간부문,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회복세인 반면, 공공부문, 토목 투자는 감소세

건설경기 선행지표도 대체로 회복세를 시사

- 건설경기 선행지표 중 건축 수주는 증가세인 반면, 토목 수주는 감소세
- 건축 허가면적과 착공 면적 모두 상승세 지속 중

표 6 |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					2014		
		1Q	2Q	3Q	4Q	연간	1Q	2Q	3Q
건설투자		1.9 (6.5)	9.8 (4.6)	8.8 (0.2)	5.4 (-5.2)	6.7	4.3 (5.1)	0.2 (0.4)	3.0 (2.9)
주 체 별	민간	6.5 (13.8)	11.5 (0.1)	8.6 (-3.1)	8.2 (-2.0)	8.8	5.3 (11.0)	4.3 (-1.1)	-
	정부	-19.1 (-17.8)	3.6 (25.6)	9.3 (12.6)	-2.8 (-15.3)	-0.5	-1.2 (-16.4)	-15.4 (7.4)	-
형 태 별	건물	1.6 (5.4)	12.8 (7.2)	10.9 (0.5)	8.6 (-4.0)	8.8	8.2 (5.1)	3.6 (2.3)	-
	주거용	9.3 (12.7)	27.7 (8.4)	20.9 (-1.3)	18.7 (-1.1)	19.4	17.9 (12.2)	9.6 (0.0)	-
	비주거용	-3.7 (0.9)	4.2 (6.3)	5.3 (1.7)	2.2 (-6.1)	2.4	0.6 (-0.1)	-0.7 (4.1)	-
	토목	2.4 (8.1)	5.6 (1.0)	5.4 (-0.1)	1.6 (-6.9)	3.7	-1.7 (5.1)	-4.7 (-2.5)	-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건설투자는 내수 회복세와 정부 SOC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보다 소폭 높은 2%대 후반 증가를 예상

- 가계부채 문제와 미래 부동산가격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 심리 등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

수출입 : 2015년 수출 연간 4.5%, 수입 6.0% 내외 증가 예상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등 개도권 경기의 부진과 하반기 이후 유로권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10월까지 2.9% 증가에 그치는 등 연초 기대보다는 회복세 미약

- 수입도 자동차 등 소비재의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이 완만한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

표 7 |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3		2014				
	연간	4Q	1Q	2Q	3Q	10월	1~10월
수출	5,596 (2.1)	1,464 (4.7)	1,376 (1.7)	1,457 (3.2)	1,421 (3.9)	518 (2.5)	4,771 (2.9)
수입	5,156 (-0.8)	1,331 (2.5)	1,323 (2.0)	1,308 (3.2)	1,331 (5.6)	443 (-3.0)	4,405 (2.9)
무역수지	440	133	52	149	91	75	3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10월 실적은 잠정치.

- 수입 회복세가 연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1~10월 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보다 확대된 367억 달러를 기록

품목별로는, 반도체·철강·선박류 등이 비교적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전·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

지역별로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대선진국 수출이 1~9월 중 5.0% 증가한 반면,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대개도국 수출은 0.5%의 미미한 증가

- 대선진국 수출은 대미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이후 재정위기가 재부각된 대EU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엔저로 인해 대일 수출은 금년에도 계속 감소
-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기 둔화, 생산능력 확대, 성장정책 변화 등으로 올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중국의 수출이 확대된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EU경제의 재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 수출의 회복과 미국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2014년 연간 수출 증가율은 3.3%, 수입 증가율은 3.7%를 기록할 전망

- 수입의 회복이 기대보다 완만한 수준에 그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과 비슷한 규모인 430억 달러 내외를 달성할 전망

2015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세로 수출 증가율이 금년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로 인한 일본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율은 소폭 상승에 그쳐, 연간 4.5% 내외 증가를 전망
- 유가 하락도 우리 수출주력상품의 하나인 석유제품 수출 감소를 통해 수출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15년 수입은 국내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보다 소폭 높은 6%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15년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금년보다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3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표 8 |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3.7 (0.7)	3.3 (1.0)	3.5	3.7 (0.9)	3.8 (0.9)	3.7
민간소비	2.0	1.9	2.0	2.9	3.1	3.0
건설투자	1.9	2.9	2.4	2.2	3.5	2.8
설비투자	7.5	3.2	5.3	4.8	6.1	5.5
통관기준 수출 (억 달러)(%)	2,833 (2.5)	2,949 (4.1)	5,781 (3.3)	2,955 (4.3)	3,088 (4.7)	6,043 (4.5)
통관기준 수입 (억 달러)(%)	2,632 (2.6)	2,716 (4.8)	5,348 (3.7)	2,760 (4.9)	2,909 (7.1)	5,669 (6.0)
무역수지	201	233	434	195	179	374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주 : 〈 〉 안은 전기 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

동향분석실

dykang@kiet.re.kr
(02-3299-3205)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도훈 / 편집인 최윤기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Fax : 963-8540 www.kiet.re.kr